

씨 앗

초 른

7.

숨을 몰아쉬면 목구멍 뒷쪽에서 쇠맛이 난다고 여아는 생각했다.

몸통을 울리는 심장박동과 산속을 메아리치는 달음박질 소리가 엎치락뒤치락했다. 심장소리와 발소리가 구분되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계곡으로 구르듯 미끄러져 내려오고, 산등성이에 고즈넉히 박힌 익숙한 동굴을 시야에 들이고서야, 비로소 여아는 숨을 몰아쉬며 안도감을 느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하다.

쇠맛도 익숙하다.

여아는 쇠맛이 왜 익숙한지 생각하다가 원손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을 느꼈다. 시선을 아래로 옮겨 손바닥을 펴보았다. 놓칠세라 훌릴세라 꽉 쥐고 달렸던 주먹만한 적철석 덩어리가 노을을 매끄럽게 반사하고 있었다.

여아는 무심결에 그것을 입으로 들어올려 습관적으로 핥았다. 반갑고 익숙한 쇠맛이 목 뒷쪽과 혀끝에서 들락거리며 어우러졌다. 금속 냄새¹가 코로 번졌다. 고인 물의 표면처럼 고요하고 절은 철광의 표면에 입김이 가물거렸다.

여아가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걱정으로 주름졌던 어린 누이의 얼굴이 확 펴졌다가 다시 짜부라졌다.

- 토키는? 하다못해 청등오리나 물고기 피래미라도. 언니가 돌아오는 길에 잡아오겠다며 큰소리 쳤잖아. 누이는 두려움을 삼키고 동물의 소리와 몸짓을 흉내내며 노래하듯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여아는 몸집을 부풀리고 사나운 입모양으로 ‘으르렁’ 소리를 냈다.

누이의 볼에서 핏기가 가셨다.

- 호랑이?

여아가 힘겹게 웃어보이며 어깨를 훌훌 털었다.

- 응. 잘 따돌렸어.

누이는 내심 놀라워하면서도 애써 내색 않으려는 투명한 표정을 짓더니, 말없이 불가에 쭈그려앉았다. 알아서도 펄펄 잘 끊는 생초록의 풀죽에다가 누이는 나무막대기를 찔러넣고 팬히 휘휘 젓기 시작했다. 어색한 각도로 굽어진 발목 위로 누이가 체중을 분산시킬 때마다 뒤풍거리는 모습이 작은 청등오리 같았다.

여아는 그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땀이 식고, 지열이 식으면서, 슬슬 서늘해지는 날씨다. 이제 남쪽 어디로든 누이를 데리고 가서, 빙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당장 겨울을 날 채비를 해야겠다고 여아는 생각했다. 막막했고, 슬펐다.

여아는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풀죽을 끊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어두울 때 밝은 것을 너무 오래 보면 안된다는 고모의 충고를 떠올리고서 눈을 몇 번 깜박였다.

어두울 때 밝은 것만 너무 오래 보면 어둠이 깊어진다고.

밝은 것에만 익숙해진 눈은 어둠을 볼 수 없게 된다고.

¹ 이 이야기의 시점으로부터 1만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는 금속의 냄새가 케톤류 중 1-octen-3-one 이 피부와 반응하여 내는 냄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것은 금속 고유의 향이 아니라 우리의 표피 기름이 외부물질과 섞여 생성되는 것이다. 여아는 케톤류라는 단어는 몰라도 이 사실만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둠은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동굴 안쪽에서 달싹지근하게 역한 썩은내가 훌러나왔다. 아직도 반달곰 피복을 덮은 채 그대로 누워 있는 고모의 시신을 향해 눈을 돌렸다. 여아의 표정을 읽은 누이의 눈빛은 무덤처럼 깊고 축축했다. 누이는 토끼귀 모양 손으로 땅을 파는 시늉을 했다.

- 고모 이제 묻어드려야 하는데, 토끼 한 마리조차 못 넣어드려서 어떡하지?

여아가 산 뒷편으로 잠겨가는 해를 향해 고갯짓을 하고서, 누이가 쑤던 풀죽을 가리켰다.

- 그 생각은 내일 하자. 여의치 않으면 풀죽이라도 넣어드리면 되지.

여아는 사실 오는 길에 토끼를 세 마리나 보았다. 하지만 그 가여운 눈망울의 생명이 꺼지는 꿀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모두 깡총깡총 뛰어가도록 두었다. 여아는 이 이야기를 누이에게 차마 하지 못했다.

누이는 여아가 뛰어넘어온 능선 방향으로 갸웃거리는 고갯짓을 몇 차례 했다.

- 고모의 자매님들을 만나고 왔어?

여아는 아직 아니라는 손짓을 했다.

- 호랑이를 따돌리느라 길을 잃었지 뭐야. 고모 묻어드리고 내일 같이 찾아가보자.

여아는 불에 탄 나무막대를 하나 주워서, 불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어른거리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이는 그림을 그리는 여아의 뒷모습을 눈여겨보다가, 작은 손가락으로 동굴 바닥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1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은 고모의 할머니의 이모의 할머니의 누이였다. 가끔 멀리서 옛날 이야기를 더듬으며 동굴까지 찾아오는 이방인도 있었다.

동굴 안쪽의 벽을 가로지르며 춤추는 최초의 글자.

필획이 나타내는 최초의 불꽃.

물길처럼 흐르는 불길을 새긴 돌벽을 바라보다가 넋이 나가서 조상을 만나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엉엉 울며 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손바닥에 솟구침정을 문힌 뒤 부르트고 어설픈 손끝으로 불꽃의 모양을 따라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대동하고 와서 날카롭게 빼어둔 흑요석을 불에 달구더니 자기들 팔뚝에다가 서로 그 그림을 비뚤비뚤 배껴서 새겨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고모는 힘들어했고, 여아는 어리둥절했다.

이웃 ‘한데-큰부락’의 큰할멈의 맏딸이 죽은 날도 그랬다.

‘한데-큰부락’은 남자 종을 열 명이나 거느린 – 큰 움막 다섯 개가 넘는, 부락의 여인이 5대째 뭉쳐 살고 있다는 – 근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여인촌이었다. 어떤 이는 그곳이 수렵과 채집의 성역할을 처음으로 구분해 낸 최초의 남자촌을 하극상으로 뒤엎고 건설된 여인촌이라고도 했다.

그 날, 허리가 땅까지 굽은 한데-큰부락 큰할멈이 고모에게 직접 찾아와서, 죽은 내 맏딸의 머리 위에다가 저 붉은 흙을 저기 저 불꽃 모양으로 뿌려주십사..... 하더니, 잘 순질된 맷돼지고기와 반달곰 세 마리의 피복을 이모의 발치에 늘어놓고 흐느꼈다.

고모는 승낙하지도 거절하지도 못한 채 꼬박 삼일밤을 앓았다.

큰할멈은 매일 곡소리를 내며 찾아왔고, 고모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

2

그 날 아침, 고모는 여아의 손에 묵직한 철광석 덩이를 꼭 쥐어주었다. 여아는 처음 보는 그 철광석 덩이가, 그러니까 태양처럼 둥글고 물처럼 미끄러운 그 반사체의 표면이, 꽤 경이로웠다.

고모는 나긋나긋하고 슬픈 목소리로 여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천천히 이어갔다. 이것은 ‘철’이라는 물질의 씨앗이다. 고모의 자매들의 먼 후예는 이 철광석을 ‘제련’하는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머나먼 훗날에 ‘챙기’와 같은 도구로 땅을 일구어, ‘씨앗’이라는 것을 뿌리고, ‘밭’이라는 것을 경작하며, 흙이 식물을 많이 넣게 하는 ‘농사’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고모는 여아의 작은 손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끝맺음하였다.

다른 방도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잘 간직하다가 저 두 산등성이 너머의 내 자매들에게 전해주거라.

“고모, 멀리 떠날 사람처럼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데?”

고모는 여아를 위로하듯 여아의 볼을 가만가만 쓸어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캐물어도 고모는 더는 말이 없었다.

이때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직 몇 없어서, 고모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따분했다. 누이는 아직 말이나 글을 깨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챙겨주고 알려줄 것이 많았고, 실은 상대하기가 가끔은 피곤했다. 고모만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고모는 빠르게 침잠해가고 있었다. 고모는 반쯤 감긴 눈으로 혼자 뛰라뛰라 중얼거리며 동굴바닥의 검은 흙을 구석의 토기에서 꺼낸 씨앗들에 섞어서 반죽하고 있었다.

여아는 눈치껏 흘끔거리면서, 고모가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다 나은 것이겠거니,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누이가 잠들고 난 뒤, 여아는 혼자 적철석 덩이를 깨물어보고 훑어보고 굴려보다가 벽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며 놀았다.

2

한데-큰부락 큰할멈 맏딸의 장례를 치르러 갈 채비를 하면서 고모는 여아에게 처음으로 일감을 나눠주었다. 여아는 뿌듯하고 신나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사슴뿔을 태워두거라.

힘줄을 뼈바늘에 꿰어넣거라.

돌도끼의 돌날을 갈아두거라.

여아는 고모의 지시를 따르기에 바빠서, 고모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미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누이는 공물로 받은 맷돼지고기를 꼬챙이에 꽂아 굽고서 벌써 혼자 야금야금 갚아먹고 있었다. 주섬주섬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여아에게 고모가 잠깐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고선 여아의 손을 잡고 벌리더니, 밤새 섞어누르던 흙이 담긴 가방의 손잡이를 꼭 쥐어주었다.

고모는 형형하게 충혈된 눈으로 여아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3

누이를 데리고 큰할멈을 따라가거라.
씨앗 쑤은 이 흙을 큰불 위로 멀리서 던져라.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갑자기 고모가 목 안쪽에서 그륵그륵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길게 피를 토했다. 죽은 동물의 위장을 화살촉으로 찌른 것처럼 시큼한 썩은내가 쏟아져 나왔다. 고모의 지푸라기같은 머리카락과 반달곰 피복 이불이 검붉은 피로 뭉치고 엉켜서 큰 한덩어리처럼 보였다.

고모는 이상한 소리를 그륵그륵 몇 번 더 내더니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아는 어쩔줄을 몰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 고모야, 고모야.

누이는 맷돼지고기 꼬챙이를 여전히 잡은 손으로 고모를 흔들다가 옆드려 울었다.

3.

해가 산등성이에 뉘엿뉘엿 노을을 드리우는 저녁이 되고서야 비로소, 여아와 누이는 마치 기름 속을 해엄치듯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며, 벗살무늬가 아로새겨진 토기에 계곡물을 길어 왔고, 보드라운 이끼를 뜯어왔다.

고모의 뜬 눈을 감겨주고, 고모 입가의 피거품을 닦아주고, 이제 이끼를 적셔서 고모의 시신을 씻으려고 쭈그려 앓은 여아의 시야가 돌연 어두워졌다.

등돌아 보니, 모닥불 앞에 선 한데-큰부락 큰할멈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주름에 파묻힌 눈을 분노로 번뜩이며.

- 이년이 감히 죽었데? 내 딸딸의 승천날에? 네년의 이 핏덩이들을 내가 가만 둘 줄 알구?

- 큰할멈님.

풀벌레 날개처럼 파르르 떨기 시작한 누이의 손을 꼭 쥐고서, 여아는 어디서 솟구쳤는지 알 수 없는 폐기로 침착하게 손짓했다.

- 고모를 승계한 게 나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방도를 알려주셨소이다.

여아의 손짓을 보자마자 천둥번개처럼 짜렁짜렁하던 한데-큰부락 큰할멈의 기운이 순식간에 병아리처럼 작고 고분고분해졌다. 한데-큰부락 큰할멈은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를 구경하는 듯한 표정으로 여아를 위아래로 훑더니, 땅에 닿도록 굽은 허리를 더더욱 굽혀서 턱을 땅에 몇 차례 박았다. 모이를 쪼아먹는 닭처럼 흐뭇하고, 집요하고, 속없는 동작이었다.

- 아이고, 그렇다면 따라와 줍셔요.

누이가 무서워서 발을 끌자 여아는 한 팔로는 누이를 번쩍 들어안고, 한쪽 어깨로 씨앗 벼무린 흙이 담긴 가방을 맸다. 가방이라봐야, 언제 사냥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어느 들짐승의 가죽에 열기설기 나뭇가지를 꿰어 들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여아도 아직 키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방이 땅에 질질 끌렸다. 다행히 한데-큰부락 큰할멈의 굽은 걸음걸이는 느리고, 느리고, 느렸다. 바득바득 울던 누이는 이윽고 엄지손가락을 빨다가 여아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었다.

새까만 숲을 헤치며 큰할멈을 따라 걷던 여아의 등 뒤로, 차츰 해가 다시 뜨기 시작했다.

4.

여아와 누이가 큰할멈의 뒤를 따라 한데-큰부락 여인촌에 도달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휘영청 떠 있었다. 멀리서부터, 큰불의 연기냄새와, 수십명이 한꺼번에 연출해 내지르는 곡소리가, 한꺼번에 풍겨왔다. 큰할멈도

박자에 맞추어 ‘꺼이! 꺼이!’ 소리를 지르며 합창했다. 누이는 무서워서 여아의 목을 안고 소리지르며 울었다. 누이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곡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한데-큰부락 여인촌은 큰 강변의 암벽 아래 모래사장에 터를 잡고 있었다. 고모의 할머니가 그려주셨던 거대한 그물망 모양의 암벽화 아래로, 다섯 기의 커다란 삼각꼴 움막이 짚으로 엮인 산처럼 반듯하고 뾰족뾰족하게 모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커다랗게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큰불의 둘레에 선 여인촌의 여인들이 모여 합창하고 있었다. 큰불을 머리맡에 두고, 온갖 깃털들로 치장된 이불에 묶여, 얼굴만 비죽 내민 채 놓인 맘딸의 시신은 이미 허옇다 못해 푸르게 변색해가고 있었다. 곡소리가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큰할멈이 둘러선 여인들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여아는 누이를 안은 채로 강변으로 걸어갔다. 노릇노릇 구워진 생선과 조개들이 부장품과 젓밥으로 한가득 쌓여 있었다. 몹시 허기져 있던 여아와 누이는 뜨겁게 얼어붙은 화석처럼 구워진 치어를 하나씩 몰래 빼먹었다.

그때, 한데-큰할멈의 목소리가 거대하게 울려펴졌다.

–흙의 몸이 낳은 식물과, 물의 몸이 낳은 고기와, 생령의 몸이 낳은 육지생명의 살덩이를 먹은 나의 몸이 낳은 맘딸의 기운을 소멸로 되돌려드리오. 그러니 우리 큰부락 여인촌에게 더욱 큰 팽창의 기운을 환원해줍쇼. 이 거래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줍쇼. 더 많은 흙과 물이 더 많은 여인을 낳게 해줍쇼.

한데-큰할멈은 명령조의 몸짓으로 발원의 춤을 추며 등글게 모인 여인들의 가운데로 느릿느릿 진입했다. 큰불 둘레에 빙 둘러선 여인촌 여인들의 등을 멀리서 보며 여아는 고모의 말씀을 떠올렸다.

씨앗 섞은 이 흙을 큰불 위로 멀리서 던져라.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여아는 멀리까지 무거운 물제비를 뜨는 느낌으로, 씨앗 섞은 흙이 담긴 가방을 불에다가 던졌다.

벼락 맞은 대나무처럼 ‘펑’ 터지는 폭파음과 함께, 불길이 태양을 태울 것처럼 치솟았고, 새까맣고 시뻘겋게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각본처럼 짜여져 연출되던 곡소리에 겁먹은 비명이 불처럼 훑아붙었다. 닭알이 썩은 것 같은 냄새가 풍겨왔다.

여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흙에 섞여 있던 것은 씨앗이 아니라 유황과 초석이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읽었던 고모의 혜안이었다. 여아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 남자들! 남자들이야!

– 불! 불이야! 나 타죽네! 나 타죽어요!

자욱한 연기가 안개처럼 깔렸다. 우왕좌왕하던 여인들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몸짓과 괴성으로 외치며 각자 쓰러져 죽어갔다.

이 무렵 모든 부락이 여인촌은 아니었지만, 여인촌들은 대체로 이런 한데-큰부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여인촌의 주변에는 부락에서 쫓겨나거나 종으로 들어갈 부락을 찾지 못한 남자들의 외딴 무리가 서성이고 있게 마련이었다. 여인촌에서는 그들을 적당한 견제와 회유로 적정거리에 두며, 번식용 씨앗과 고기용 사냥꾼으로, 가끔은 너무 강해지는 녀석이 보이면 제의를 빙자한 먹이용으로, 사육하고 활용하며 종속시켜두고 있었다. 이 남자들의 무리가 이런 혼란을 틈타서 급습할 것은 분명했다.

들짐승의 포효처럼 끔찍한 남자들의 합성이 여인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여 퍼졌다.

연기와 열기 속에서도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순간, 여아의 목을 꽉 조르는 손아귀가 느껴졌다.

- 네년이 그랬지!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여아를 끌어당기는 큰할멈이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고모가..... 고모가요.”

여아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돌도끼가 날아와 큰할멈의 머리를 찍었다. 새까만 구름처럼 퍼져가는 연기 탓에 좁아진 시야에서, 여아의 얼굴만큼이나 크고 육중하고 거친 손이 큰할멈의 목을 움켜쥐었다. 큰할멈의 손은 순식간에 흐물흐물한 그물처럼 여아의 목 주위로 풀어졌다. 여아는 큰할멈의 피로 범벅이 된 눈을 꿈 벽이다가, 겁에 질려 넋이 반쯤 나간 누이의 얼굴에 툰 피를 닦으며 누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도망쳤다. 불길이 점점 거세게 붙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처럼 화르륵거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 소음과 열기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여아는 기절하다시피한 누이를 목마 태운 채 강으로 숨어들어갔다. 천만다행으로, 여기 강기슭의 모래사장은 넓고 얕았다. 여아는 차갑게 흐르는 급류가 턱까지 차오르는 압력에 온몸으로 맞서가며 큰 강의 건너편에 간신히 도달했다.

겨우 기어오른 건너편 강기슭에는 잡목림이 빼곡했다. 그물처럼 촘촘한 나뭇가지와 나뭇잎들 아래로 여아와 누이는 기어들어가서 몸을 숨겼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시끄러워진 새소리, 건너편에서 점차 흐릿해져가며 들려오는 고함소리, 귓가에서 왕왕대는 벌레소리, 그리고 지진처럼 낮게 울리는 큰불의 소리가 그늘진 덤불 속을 채웠다.

이제야 기침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누이가 몇 번 소심하게 쿨럭거렸다. 여아는 연기 냄새와 솟검정에 절여진 삼베옷 소매를 들어 눈을 비볐다. 옷자락이 얼룩덜룩하고 해져서 실밥이 틀어져 있었다. 실밥이 틀어진 것을 보니 눈물이 고였다. 고모가 손질한 겨릅대를 찌고 불리고 말려서, 납작한 태양 모양의 가락바퀴로 긴 삼베 실을 뽑고, 뽑힌 실을 움막 모양으로 친친 감으며 만들었던 실이었다. 실을 뽑는 고모의 뒷모습이 눈앞에 간절했다. 그 실로 뜨개질을 하고, 그 실을 뼈바늘에 퀘고, 마직물을 한 땀 한 땀 촘촘히 박음질하여 여아와 누이의 옷을 만들어 주시던 고모의 굽은 어깨등이 흰영처럼 눈 앞에 떠올랐다. 고모를 꼭 안아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고모의 영혼은 어디론가 긴 여정을 떠나서, 여기에 없다.

여아는 습관적으로 주머니에서 철광석 덩이를 꺼내 훑었다. 익숙한 금속 냄새가 마음을 달래준다고 여아는 생각했다. 연기가 차츰 걷히면서 오후의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햇빛은 누이와 여아의 젖은 볼을 쓸어주며 은신처를 군데군데 밝혀주었다. 덤불 나뭇가지의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 투명한 옹기조각처럼 작은 공간을 수놓았다. 들키지 않고 도망치려면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야 할 테다. 여아는 어깨를 들썩이는 누이를 끌어안고 다독여주며, 축축한 진흙냄새가 자욱한 깜깜한 덤불 아래로 산란하는 눈부신 빛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5.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눈을 떴다. 깜박 잠들었던 모양이다. 노을빛은 붉고 노란 불꽃같은 조각들로 깨지고 흩어진 채 덤불 안쪽에 물웅덩이처럼 고여 빛나고 있었다. 여아는 누이가 아직 잡든 것을 확인하고 토끼처럼 귀를 쫑긋 기울였다.

“불에 다 타버려서 약탈할 게 거의 없었어.”

“우리 남자촌이 더 강성해지려면 여인촌을 다 이렇게 뿌리뽑아야 하지, 그렇고 말고.”

“만幡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서 습격하면 뭐가 좀 있으려나 싶었는데. 다 타버려서 견진 게 뭣하나 없네.”

“멧돼지 고기나 더 자셔.”

한데-큰부락 여인촌을 습격했던 남자들의 말소리인가보다 했다. 이 남자들은 사람의 말을 고모보다 훨씬 어눌하고, 거칠고,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여인도 없어서 재미도 못 봤어.”

“그나마 살아남은 큰할멈은 늙은 암탉마냥 내가 목을 비틀어 죽였다. 목 꺾인 몸으로 이리 푸드득 저리 푸드득 난리법석을 한참 피우다가 불길에 휩싸여 꽉 쓰러지더라. 그 할망, 인간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여아는 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무게중심을 옮기고 나뭇잎 사이를 내다보았다. 큰 나무 서너 그루의 폭쯤 되는 거리에, 호랑이 피복을 두른 남자 하나와 맷돼지의 피복을 덥수룩하게 두른 남자 둘이 근육으로 만들어진 바위처럼 앉아 무슨 고기를 뜯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침묵을 지키던 호랑이 피복 차림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여인들을 끌고 가서 우리의 씨를 배게 하려고 했는데 아쉬웠네. 그래도 제군의 활약이 커어. 옆의 작은 부락까지 잘 쳤으니, 약탈한 고기와 피복과 물품들은 오늘 가장 많은 여인을 겁탈한 자에게 다 몰아주도록 하겠네. 공적이 없는 놈은 노비로 삼아서 우리의 새로운 남자촌에서 ‘밭’을 일구도록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멧돼지 남자들이 유순하게 동의를 표했다. 호랑이 남자는 득의양양해서 강 건너를 향해 막연히 손짓했다. “그러려면 저기 공적 없는 놈들과, 이 여인촌의 종으로 살던 놈들을 가득 겁주고 제압해야 할텐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멧돼지 남자 중 수염이 유독 덥수룩한 자가 입을 열었다.

“겁주려면 글씨와 그림만한 것이 없습죠. 그러고 보니 그림과 글씨까지 쓸 줄 아는 여인이 저기 고개 너머 어느 동굴에 있던데요. 제가 어릴 적에 가족과 같이 가서 봤는데요. 벽에서 불길이 짹렁찌렁하는 것이 아주 천동번개보다도 무섭고 경이로웠거든요.”

고모의 동굴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아는 수염난 맷돼지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아주 옛날에 왔다 간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듣고 보니 과연, 우리의 새로운 ‘농경사회-남자촌’은 ‘글씨’와 ‘그림’으로 수놓은 직물처럼 직조하는 것이 좋겠네. 그 동굴여인을 제압하여 나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호랑이 남자가 흑심으로 입을 껍alendar 다시며 말했다.

멧돼지 남자 중 조개로 된 팔찌를 치렁치렁 달고 있는 이가 말했다. “오늘의 불길의 규모를 보아하니 동굴여인의 기운도 다 쇠해서 죽었을 게 분명하외다. 오는 것이 있으려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기운이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소이까.”

그러자 수염난 맷돼지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그었다.

“모르는 소리 마요. 그물암벽화를 그린 여인을 승계한 이가 바로 그 동굴여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죠. 아마 사람이 아니라 신일지도 모르오.”

호랑이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이야기를 듣더니 탄복했다. “저런 거대한 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었더라면!”

그리고선 불현듯 오묘한 생각이 스쳐가는 표정으로 호랑이 남자가 말했다.

“전설에서만 회자되던 어떤 금속물질을 동굴여인의 자매들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것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청동’ 일지도 모르오. 상상해 보게. 우리에게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마나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곳을 습격함이 어떠한가? 제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수염난 맷돼지 남자가 놀라서 쿨럭거렸다. “아니, 동굴여인의 자매들을……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죠. 남자촌이 남김없이 분쇄되고 말 거요.”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입장을 들은 호랑이 남자가 분개하며 돌도끼자루를 움켜쥐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조개팔찌를 찬 맷돼지 남자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동굴여인에게 자식은 없다고 들었어요. 승계할 이가 없으면 자연히 죽어나갈 모계의 씨줄입니다. 굳이 그 자매들을 치러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아는 이들이 고모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냄새처럼 감지할 수 있었다.

“동굴여인이 죽은 것은 확실한 정보인가?” 호랑이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수염난 맷돼지 남자가 어정쩡한 몸짓을 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의를 한 것을 보니,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의식을 치렀다면 성지 못할 게 분명합죠.”

“그렇다면 그 동굴을 약탈하러 가보는 것은 어떠한가? 상상해 보게. 동굴여인의 동굴에는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각종 공물과 진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호랑이 남자의 이 말을 듣고 여아는 탄식이 새어나오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 조개풀찌를 찬 옛돼지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신이 썩어 백골화되고 영혼이 다 날아가려면 49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동굴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조상님께서 일러주셨소. 동굴여인 같은 영매의 영혼은 이승과 저승의 사잇길에 걸쳐 있을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남자가 불만으로 이글거리는 기운이 연기처럼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조상님까지 언급된 마당에, 더 반박할 수는 없는 논리였다.

6.

논의를 마친 남자들이 첨벙거리며 강을 건너는 것까지 다 보고서, 여아는 누이를 업고 덤불 밑에서 기어 나와 동굴을 향해 걸었다.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꼴이었다. 다행히 여아는 동굴과 이 강줄기의 거리를 대략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강을 따라 걷다가, 큰 곰모양의 점선잇기 별자리를 향해 꺾어 올라 걸으면, 익숙한 우리의 동굴이 나올 테다. 여아는 어느덧 깊어지는 밤의 맞은편 강변에서 불잉걸로 타 들어가는 시신들과 움집의 형체를 어렵잖이 볼 수 있었다.

해가 마흔 여덟번 더 떴다가 질 때까지는 동굴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

이 사실만큼은 여아의 마음이 뉙작지근해질 정도로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다.

다시 찾은 동굴에는, 떠날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얼굴을 한 고모의 시신이 반달곰 피복을 두른 채 누워 있었다. 기진맥진한 여아는 누이를 먼저 눕힌 뒤, 싸늘해진 고모의 곁에 마지막으로 함께 누워서, 내일을 생각했다. 고모의 남은 체열이 식어갈수록 고모의 몸 속 어둠이 더욱 깊이 자리잡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 비례하여, 여아와 누이의 벳속에는 어떤 뜨겁고 밝은 슬픔이 더욱 눈부시게, 마치 희망이나 용기를 닮은 정체모를 감각으로, 뿌리나 가지처럼 뻗쳐나가고 있었다.

여아는 옆에 누운 누이에게 적철석 덩어리를 보여주며 손짓했다.

- 이 ‘철-태양’을 봐. 고모가 주신 거야.

누이는 놀라워하며 태양처럼 둑글고 물처럼 미끄러운 철광석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비벼보았다.

- 물이야? 돌이야? 아니면, 나무나 뼈 같은 거야?

- 물도, 돌도 아니래. 나무나 뼈도 아니야.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래. 하지만,

여아가 후 하고 입김을 불었더니, 적철석의 표면에 입김이 가물거렸다. 누이도 웃으며 여아를 따라했다.

- 이것 봐. 꼭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지? 이렇게 십년, 백년, 천년, 만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숨을 쉬는 씨앗이야.

- 이것이 씨앗이라구? 이렇게 큰 씨앗이라면 정말로 거대한 나무가 되겠는데?

누이가 팔을 쭉 뻗으며 나무의 모양을 해보이며 웃었다. 여아도 따라 웃었다.

- 고모의 자매님들의 후예는 이것을 ‘철’이라는 물질로 바꿀 수 있대. 그러면 땅에서 식물이 많이 자라서, 겨울에도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해진 사람들이 모두 사시사철 행복할 수 있대.

-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

누이는 자철석을 이루만지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보름달을 월식처럼 가리는 놀이를 하며 웃었다.

- 달아 달아, 사람들이 모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해주렴.

여아도 뎅달아 웃었다.

- 몇백 년이나, 어쩌면 몇천년은 더 걸릴지도 몰라. 일단, 고모의 자매님들에게 이 씨앗을 전달해드려야 해. 내일 금방 다녀올게. 해가 저물기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누이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적철석 덩어리를 여아에게 던지듯이 돌려주며 여아에게 안겼다.

- 안 돼, 나 혼자 여기 있으라구? 언니 없이 혼자 여기 하루종일 있으라구?

여아는 어둠 속에서 겨우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능선 방향으로 가웃거리는 고갯짓을 몇 차례 했다.

- 어쩔 수 없어. 대신 금방 올게. 내일 고모의 자매님들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안 되면 모레, 그래도 안 되면 글피에 다시 다녀와볼게. 하루만에 돌아오지 못할 거리 같으면, 그때는 같이 면 길을 떠나볼 채비를 하고 같이 가보자.

- 내일 같이 가면 안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누이의 표정에 여아는 동굴 안쪽에서 부페해가는 고모의 시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 누이야, 고모를 묻어드리기 전까지는 지켜드려야지. 나는 오는 길에 뭐라도 꼭 사냥해 올게.

누이가 토라진 표정으로, 구석에 한가득 쌓인 식용 풀과 생선포와 맷돼지꼬치를 가리켰다.

- 풀죽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먹을 건 아직 많아.

여아가 고개를 저었다.

- 우리가 먹으려는 게 아니야. 고모가 흙으로 잘 돌아가시려면, 고모를 묻어드릴 때 품에 토끼라도 안 겨드려야 하거든. 삶과 죽음은 밤과 낮 같은 것이라서, 순환이 되어야 하니까.

여아와 누이는 별들이 머리 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거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슬 속에서 큼지막한 천장을 훤 누군가의 손아귀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황홀한 무력감이자, 참혹한 확신이자, 절망적인 안도감이었다.

누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코를 몇번 찡긋 하더니 물었다.

- 꼭 돌아올 거지?

- 꼭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누이가 손으로 토끼귀 모양을 하며 물었다.

- 토끼가 다 도망쳐버리면 어떡해?

여아는 뒤통뒤통 몸짓과 물고기가 물살을 가르는 손짓을 했다.

- 청둥오리나 송사리 피래미라도 잡아올게, 걱정 마.

- 그리고 나면?

여아는 이야기를 해도 될지 잠시 망설이다가 누이에게 알려주었다.

- 달이 한번 차고 기울 동안은 안전해. 그 다음에는 아마 금세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거야.

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 고모의 자매님들과 함께 머물러도 좋을까?

여아가 잘 모르겠다는 동작을 했다.

- 글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선 고모의 시신을 수습해드리고, 여기 동굴자리를 정리해야지.

누이가 독촉하듯 물었다.

- 그리고 나면?

여아가 생각하다가 변뜩 떠오른 듯 말했다.

- 따뜻한 남쪽으로 가면 어때? 바다가 좋겠다. 당분간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다른 부락도 구경하고, 고래라는 생물도 보고, 어떤 식물과 어떤 새들이 다른 곳에 사는지도 알아가면서 돌아다녀 보자. 어때?

누이는 여아에게 안겨 벌벌 떨기 시작했다.

- 언니 난 무서워. 여기 있어도 무섭고, 여길 떠나도 무서워.

여아는 누이의 등을 쓸어주며 물었다.

- 뭐가 무서워?

누이가 불안에 젖은 작은 소리로 깽깽대며 답했다.

- 다 무서워. 하나도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다 무서워. 뭐가 무서운지조차 모르겠어.

여아는 모닥불을 나무막대로 몇 번 찔러서 불씨를 살렸다. 사그라들던 불길이 조금 밝아졌다.

- 같이 알아가면 되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줄게.

빛과 어둠을 모두 볼 수 있는 눈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어두울 때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두려움은 무지이며, 무지는 어둠이며, 진실을 아는 것은 곧 빛이다.

두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빛을 바라볼 수 있다.

-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믿지?

- 믿어볼게.

누이가 잠든 토끼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